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사진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사진의 의미? feat.독서의 위대함

1문단_

독서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 같은 말

사진이라는 예시로 과연 무얼 말하고 싶은걸까요? 사람들이 저런 상황속에서도 책을 찾을 만큼 독서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하여간 **이유가 될까 하면서 동그라미 친 것들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잘 느껴봅시다!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찰의 행위**이며,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문단_ 독서가 위대한 이유1

-책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

동그라미만 쳐도 글의 흐름이 보이죠? **이유1=자기 성찰 !**

또한 ㉡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가하게 한다.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3문단_ 독서가 위대한 이유2

-책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힘을 길러준다.

1문단에서의 사람들이 책을 찾는 이유가 나왔네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동그라미들을 보면서 이 말들이 똑같은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 = 세상에 대한 안목 = 자신의 관점 = 문제 해결의 실마리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다.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4문단_ 독서는 뭐다?
('자신' -- '현실')을
잇는 다리다.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 2문단의 독서가 위대한 이유1; 자기 성찰-- '자신'
외부 세계로의 확장: 3문단의 독서가 위대한 이유2; 자신의 관점 to 세상-- '현실'

앞의 내용을 멋지게 정리하면서 글이 끝나네요!

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사람들이 책을 찾는 이유

선지 읽기전에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이 왜 책을 찾나요? 이게 글의 주제였죠?

1) 자신을 성찰하고, 2) 세상을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볼 논리와 힘을 얻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였죠?..

('자신' -- '현실') 이건가요? 실제로 제가 수능장에서 썼던 메모라 굉장히 반갑네요,,

그럼 선지를 봐볼까요?

- ①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 ②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 우리가 찾은 주제와 정반대네요,,
- ③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눈에 튀어야 합니다.
-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 ⑤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이렇게 정답은 주제를 꿰뚫는 선지가 정답 선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거예요 ㅎㅎ

2. <보기>는 ㉠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3문단의 '자신의 관점'

<보 기>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보기>도 하나의 글로 생각하고 동그라미 칩시다!

글의 요지가 뭐죠? [다양한 관점--> 관점 재구성--> 자신의 관점 확립]

for 자신을 성찰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4문단 막줄)

- ①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군.
- ②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군.
- ③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군.
- ④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겠군.
- ⑤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견고히 해야겠군. **관점 재구성과는....;;**

<보기>와 이 글의 주제였던 관점 재구성을 통한 '자신의 관점' 확립이라는 주제를 정확히 역행하는 선지가 정답으로 나왔네요. **주제만 찾으면 정답이 스스스스 보이는 느낌~**

3. 다음은 읽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뭔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부족한 점이 있겠네요.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게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

우선 문제점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해결책이네요. 2문단의 독서의 이유1; 자기 성찰에 초점이 맞았네요!

독서를 통한 자기 성찰? 한 문장으로 보기가 요약됩니다.

이제 예측해봐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자기 성찰을 할거다~ 이런 내용 아닐까요?

- ①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 뻔하다 이 말입니다...
- ②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을 버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③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④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R 독존 with Orbi

(가)

1㉠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 용어의 정의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아 세 범주: 정, 반, 합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정(正) vs 반(反)-->합(合)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with 조화로운 통일[조건]
 논증의 방식임을(1)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2) 변증법의 두 가지 의미.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 이념과 이념과 현실이 각각 체계이고,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변증법적으로 존재한다고?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 지녀야 한다. --->이념(正)vs현실(反)->?(합)
 합에 해당하는 ?가 뭘까...

1문단

이 지문 자체가 정/반/합으로 이루어지는건가..?

일단 알아낸 건 정(正)vs반(反)-->합(合) with 조화로운 통일[조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 이념 / 반; 현실

또한 '수렴적 상향성' -> '합' 이 정, 반보다 발전됐단 걸 알 수 있습니다.

2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
 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또 3개..여기도 정반합이..?
 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수능완성 연계,,)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 가리킨다> 예술·종교· 절대정신은 이념(正)을 인식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Si(공통점): 절대적 진리;이념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di(차이점): 인식 형식의 차이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정의가 쏟아질 때 반드시 정리!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
 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나왔습니다. 정반합이.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2문단

예술 종교 철학이 각각 직관 표상 사유와 대응한다고 서술되어있으므로,

예술/직관/외면성-정(正) 종교/표상/내면성-반(反) 철학/사유-합(合)로 정리되겠네요.

그럼 철학>>예술, 종교라는 것까지 나오네요! (수렴적 상향성)

3]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3문단

이미 앞서 나온 내용을 친절히 정리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정/반/합을 예술 종교 철학에 대응하지 못했어도 여기까지 왔다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요지는 '철학>>>예술 (정vs반->합)'이라는 거죠.

(가)글을 정리해보면, 예술과 종교가 종합되서 철학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글을 읽을건데, (가)와 (나)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글들입니다.

어떤 연결성이 있길래 출제자가 두 글을 썼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광펜 기능을 이제 알아서 (나)는 형광펜을 써볼게요..! TT

(나)

1.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조화로운 통일(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네요!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 아마도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듯 합니다. - Si

1문단

(가) 글에서 우리가 봤던 변증법 중 '합' 단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합은 조화로운 통일이라는 것과, 잘못된 합의 두 가지 종류; 일방적 승리, 중화상태
일방적 승리는 말 그대로 한 범주만 남고, 중화상태는 절대적 진리가 소멸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 상태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도입부니까)

2.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탁월성->최상의 범주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걸까?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사유 순으로 (가,나 연결성 찾기!!)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정/반/합 맞아 보이는데..?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 보면 직관으로부터 자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아 조화롭지 못한 통일이구나.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 이루어지지 ; (가) 글의 문제점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직관과 예술이라는 범주의 본질적 규정인 감각적 지각성의 소거?

--> 중화상태..!

2문단

평가원의 글이 왜 논리적인지 알 수 있겠죠? 필요한 단어의 뜻을 정의하고 그 두 단어에

해당하는 (가) 글의 '헤겔의 변증법으로 해석한 미학'의 맹점을 꼬집는 글이었습니다.

도입부를 잘 해석하면 글의 전개 방향을 알 수 있으니 꼭꼭 연습합시다. 기출 분석!!!!

③번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예술은 사유(철학)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철학으로 인해 너무

완전한 주관성은 일방적 승리
다시 객관성 회복->조화를 달성.

! (가)글은 예술을 떠나면 과거로 한정했지만, (나)는 오히려 철학 이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연결성입니다! [반대]

강해진 내면성이 외면성과 조화를 이뤄야 할 필요를 역설한다는 것이겠네요.

3문단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표현했으니 예술의 위상을 높인 글이었네요.

정리하자면,

“예술은 사유를 통해 감각적으로 다시 지각하는 고차원적인 인식 형식이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인 만큼 3문단의 요약이 (나)글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오래 걸리네요 참.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제가 써놓은 정리만 다시 보고 읊시다!

문제로 가기 전에 한 번 어떻게 정답 선지로 나올지 주제를 정리해볼까요?

(가)글은 예술(正)+종교(反)=철학(合)이므로 예술<<철학 이라는 것이었고요,

(나)글은 미학에서는 재객관화를 통한 예술의 위상 회복 - 예술>철학 이 되겠네요.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 복합 지문의 경우 첫 문제는 (가)와(나)의 **연결성**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들은 예술의 위상에 대해 서로 정반대의 글**이라는 것ですよ.

이제 선지를 볼까요?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변증법이네요.**
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찾은 연결성과 딱 맞네요!**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헤겔 생각 즉, 우리가 찾은 주제를 한 번 더 봅시다.

예술/직관/외면성-정(正) 종교/표상/내면성-반(反) 철학/사유-합(合)

순서대로 절대정신의 형태/형식/특성 이었습니다.

주제라고 할 게 하나 더 있었죠?

‘철학>>>예술 (정vs반->합)’

예술의 상대적 위치가 철학보다 한참 밀이라는 거였죠. 둘 중 하나가 정답 선지겠네요.

이제 선지를 한 번 봐봅시다.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크게 선지들 중 우리가 생각한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만 한 번 뽑아본다면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1번, 3번이 되겠고,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것은 없네요.

그리고 1번과 3번 중 3번의 경우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정의]**에 의해

직관은 물리적 대상, 표상은 내적 심상, 사유는 종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 대상과 형태(예술/종교/철학)은 전혀 다르네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모든 선지를 다 볼 수 밖에 없지만(저 또한 그랬고), 그래도 주제를

생각하고 보면 첫눈에 튀는 선지들이 있고, 무엇보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정의 check**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인문 지문에서 새로 단어를 정의할 때의 정의**는 반드시 문풀에 쓰이니 반사적으로

챙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발문을 보면,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라고 하네요.

즉, 이 단어의 [정의]를 사용해서 단어의 적절성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또 나왔네요! 2022.06 과정이론의 6번 문제에서도 ‘교차’와 ‘과정’의 정의만 알면 답

이 나왔었는데 그와 유사한 문제라는 느낌을 수능장에서 받았었던게 기억이 나네요.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직관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지각인데??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이렇게 정의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태 해온 것처럼 **[주제]**로도 풀 수 있습니다.

5번에서 못 썼던 두 번째 주제에 의하면, 예술과 직관은 하위의 인식 형태와 형식이었죠?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창작이라는 고차원적 행위’를 직관이 할 수 있을까요? 으음....

역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역지는 평가원 문제에는 모두 통합니다..

평가원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정답으로 내니까요.

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반합 // ㉡: 예술, 종교, 철학

(나) 관점에서 (가)글의 ㉠과 ㉡을 본다면, 예술의 위상이 잘못됐다고 할 것은 당연하겠죠.

(나) 주제: “예술은 사유를 통해 감각적으로 다시 지각하는 고차원적인 인식 형식이다.”

이제 또 생각해봅시다. 문제를 읽고, 답이 뭐일지 생각해보며, 글의 주제도 되새기고

출제자의 의도도 파악하는 5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철학으로 갈수록 일방적 승리와 중화상태가 나타나 조화로운 통일이 되지 못하며,

그런 점에서 예술은 철학 이후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절대정신이라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을 외면상으로는 지키지만, 실질적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를 봐볼까요?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첫 번째가 약해진다=예술이 약해진다 - 예상대로네요;;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이제 체화가 되고 있을 겁니다.

모든 기출이 이러니 얼른 책피고 다른 문제로 해보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죠! (9번 어휘 문제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의 주제를 떠올리며 읽읍시다.

<보 기>

헤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망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 는 말이 됩니다.

최고의 지성적 통찰; 철학
진정한 예술미; 철학 이후
= 예술!!

변증법을 말하는 거겠조.

(가)에서는 헤겔에 의하면 예술은 머나먼 과거로 한정되는 단순한 ‘정’이었지만,

<보기>의 헤겔에서는 예술이 철학 이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에 가깝습니다.

특이한 상황이라는 게 보였어야 합니다. 헤겔의 적은 헤겔 (해적해)의 느낌..?

따라서 빈칸 가는 ‘예술은 지적 성숙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 이후의 절대정신(합)이야.’

정도로 해볼 수 있겠네요. 이제 선지를 봅시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현실에서 중화면.. 망한거죠**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론에서는 예술이 정립이지만, 현실은 합이겠네요.**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객관성은 예술의 본질인데 사라지면 중화상태 됩니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진리의 인식을 수행 못하는 절대정신..? 말이 안됩니다.**

저도 수능장에서 2번을 바로 못 골라서 이번에는 오답인 이유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미리 생각해놓은 답과 선지2번을 비교해볼까요?

지적 성숙 즉, 철학으로 갈수록 주관성과 내면성이 짙어짐은 지문에 나와있었죠?

지적 성숙을 기반으로 --> 내면성을 바탕으로 ..!! 2번이 답이네요.

1문단_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는 누누이 말하지만, 반드시 Check!!

지적의 내용이 뭘까? 구조적 모순?

미지의 단어가 너무多 -> 뜻을 찾으러 가야함

떡밥투성이의 1문단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떡밥 투성이--> 회수하면 떡밥 ㄱㅇ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떡밥: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 1), 적자 허용x >유동성 공급 중단>경제 위축 2)

적자 지속(허용 0)>달러 과잉 공급> 준비자산 신뢰도 저하> 고정환율제도 붕괴 3)

1)은 트리핀 배경, 2)은 트리핀1, 3)은 트리핀2라고 앞으로 서술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UR독존 with Orbi

2문단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트리핀1-신뢰도 확보**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트리핀2-국제 유동성 확보**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①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국제 유동성 정의 check**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환율 정의 check**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 정의 check**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 달러화도 금처럼 보편지불수단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 정의에 의해 달러=기축통화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금과 달러가 언제나 교환이 돼야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금 환 본위제(달러의 보편성)'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가 성립하는군.**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 다른 통화들도 가치가 고정.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즉, 교차환율이 자동 결정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 되었다.

떡밥이랑 연결지어봤나요?

제가 수능장에서 했던 생각은 오로지 1문단의 떡밥 회수뿐이었습니다.

'트리핀1-신뢰도 확보'의 이유가 뭐지?? --- 금세 까먹으셨죠? 처음엔 당연합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저 생각만 하고 1문단의 지문을 다시 보고 읊시다.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

적자 X -> 유동성 중단; '달러와 금' (정의 check)의 공급 중단

앵 달러는 금과 교환된다며? 아 금이 모자르네.

금 공급 중단=유동성 공급 중단 -> 트리핀1의 의미.

트리핀2도 해볼까요??

!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

적자 0-> 달러 과잉 공급; 자꾸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들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 함.

금이 없어서 못 바꿔주네 -> 신뢰도 하락. 따라서 금 환 본위제 붕괴-고정환율제도 붕괴.

달러 과잉 공급- 금 부족해짐 -> 트리핀2의 의미

1문단과 연결지어서 2문단을 읽으니 의미가 해석되는게 보이시나요?

***이처럼 압축적 1문단이 제시되면,
다음 문단들과 연결지어 읽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2문단을 정리하자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걸 얼마나 미국이 잘 해낼 수 있냐에 따라

국제 유동성 공급이니, 신뢰도니, 세계 무역이 잘 될 수 있단 걸 알 수 있는거죠.

[금 <--> 달러 교환율] ∞ [무역 잘 돌아감]

이제 3문단 갑시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적자0-> 트리핀2네요!**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신뢰도가 낮겠네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S1:달러 평가절하**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S2:다른 나라 통화 평가절상**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무조건 35\$=금1온스**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 **이 상황 = 평가절상 안하려고 함.**
 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환율 압력이 더욱 커졌다..?**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평가 절상이 해결책인데 오히려**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평가절하(가치하락)되었단거구나.**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
 되었다. **이제 금으로 못 바꿔주니까 브레턴우즈가 붕괴했네 ㅜㅜ**

이해되셨나요? 트리핀1과 트리핀2를 잡으니 글이 1문단의 개념으로 모두 정리가 됩니다.

이게 평가원의 논리성입니다.

3문단을 정리하자면, **유일한 해결책인 다른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은 이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던 일본과 독일은 할 수 없었고, 투기적 수요로 인해 오히려 평가절하가

일어나 상황이 악화되어 닉슨 쇼크가 일어난거네요..!

또한, 3문단 처음을 보면, **트리핀2였잖아요? 즉, 트리핀 1도 트리핀 2도 문제인 모순에서**

결국, 트리핀 2로 넘어가 트리핀의 예측대로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된겁니다.

1문단이 정말 어마무시한 떡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엔 금으로 못 바꾸는데도..?**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 규모의 경제가 이유이군.**
 ㉔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 ${}_n C_2$ 네요.(수학 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 **하나의 기축통화 중심이면,**
 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n-1)이네요.**

4문단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여전히 달러가 기축 통화로 쓰인단 거였습니다.

${}_n C_2$ 는 $n > 2$ 일 때 $(n-1)$ 보다 크니까, 비용이 늘어난다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수능장에서 어이없어하며 수학 풀듯이 끄적였네요..

지문해설이 드디어 끝났네요!!

지문 정리를 해보자면,

적자를 없애든, 유지하든 어차피 망하는 **구조적 모순**이었는데, 결국에는 적자가 누적되서
 금 준비량이 줄고,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서 점점 더 금이 필요해져서
금 부족으로 인해 금 태환 중지! **-그 흐름 이라고 뒤에서 부를게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 트리핀1과 트리핀2중 트리핀2네요!

‘문제로 아마 트리핀 2가 자세히 나올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경제 지문은 **원리**(1문단)와 **사례**(2, 3문단)로 대응되니 문제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고 풀어야 합니다..! 이제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0.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누누이 말하지만 중요한 게 정답이에요. 글의 근본적 아이디어가 뭔지 생각해볼까요?

[금 <--> 달러 교환율] ∞ [무역 잘 돌아감]

이 사실 덕분에 트리핀2도 설명이 됐고, 왜 브레턴우즈가 중단됐는지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문단
-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트리핀: 글의 떡밥.. 이어야 하는데 결과가 나와있네..?
-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 금 태환 의무 (우리가 예상했던 것)
-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금(우리가 예상했던 것)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금 못 바꿔줘서(예상)

이런 문제가 사실 중요해요.

누군가는 보자마자 풀었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너무 쪼잔하다라고 말하는 문제이죠.

다시 반문해봅시다. 정말 쪼잔한 문제일까요, 그 이면의 의도를 우리가 몰랐던 걸까요?

이런 쪼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주로 ‘관계’ 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이 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관계인지,

지문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과 관계 전반 선지’ 가 있습니다.

지금 해본대로 하면, 2번 선지는 글의 떡밥에 해당하는 ‘트리핀 지적 인용’ 부분이었죠.

하지만 선지의 내용은..?글의 결과인 브레턴우즈 붕괴를 언급하네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선지가 지문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예시입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던대로 생각해봅시다. 주제가 뭐였죠? 지문 해설 끝나자마자 정리했던 그 흐름이요!

더 요약하자면, 트리핀 2가 실제로 실현되었던 게 글의 주제였고 그게 문제의 답일걸요?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S1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렵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금 부족이 문제, 해결은 금 공급! 이 상황=평가절상x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트리핀1과 2의 구조적모순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 ->평가절상=가치상승:S2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5번 선지 길어서 여기다가 서술하겠습니다.

일단 고정적인 것은 '금 1온스 = 35\$' 입니다. 이걸 절대적인 고정이에요.

마르크화가 달러에 대해 가치가 상승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35\$ = 7 마르크-> 35\$ = 5마르크 따라서 7마르크=49\$=금 1.4온스'

따라서 예전에 비해, 같은 7마르크로 살 수 있는 금이 증가했네요!

이게 왜 문제로 나온 걸까요? 여러분이 무심결 지나쳤던 S1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째서 트리핀2의 해결책 S1이 달러의 가치 하락인가.

'35\$=금 1온스' 에서 달러 가치가 내리면, 35\$ < 금 1온스가 되죠.

따라서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금이 비싸짐)하므로 금 수요가 줄죠.

금 수요 감소 = 금 준비량 금감(문제)를 완화 -> 해결책. ∴ S1 .

이 문제의 출제 이유는 지문의 근본적 아이디어인 '금1온스=35\$' 의 원리여서 였습니다.

즉, 지문의 흐름에 필요한 이해가 없으면 경제 지문은 문제 풀 때 죽어나가는 겁니다.

12.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풀려면, ${}_n C_2$ 와 $(n-1)$ 의 대소만 비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글의 주제**로 풀리니 여기서는 그 방법만 쓰겠습니다.

㉠, ㉡은 달러화가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은 달러가 기축 통화죠.

4문단의 주제는 기축 통화가 있으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 ㉡보다 가짓수가 적어서 비용이 절감된다'가 그 주제이자 답이겠네요.

-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 정말 나와버렸네요.. 답이겠군요.

수능장에서 나머지 선지를 계산하지 않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도 계산 다 했어요.

하지만, 답이 될 거를 미리 짐작하고 계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음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출은 많으니, 계속해서 '무엇이 출제자의 의도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진정한 기출 분석 아닐까요..? 마지막 문제로 갑시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도 하나의 글이라 생각하고 읽읍시다!!

<보 기>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A국=미국, 금리인상
달러 감소=적자
계속되는 금리인상
->외국자본유입

B국이 유난히 하락

다른 나라의 통화라는 측면에서 그냥 B=일본, C=독일이라 생각해도 무방하겠네요

이처럼 경제에서 출제되는 <보기>문제는 지문의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문의 상황과 같은 상황인지, 역의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문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 A,B,C를 미국 일본 독일로 치환하는 건

자주 쓰이는 방법이니 눈에 담아 두세요! 원활한 해설을 위해 보기를 한 번만 정리하면,

<보기>1: 브레턴우즈 체제가 이미 붕괴

<보기>2: 금리 상승, 통화 공급 감소->달러 감소리는 것은 수입>수출=경상수지 적자

<보기>3: 외국 자본의 유입

이제 정말 선지로 갑시다!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전파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트리핀2의 신뢰도 저하는 금이 모자라서였는데, <보기1>로 인해 이제 금과는 상관 X 만약 브레턴우즈 체제였어도, 트리핀 2에 의해 달러공급 증가->신뢰도 감소. ∴ 완전틀림.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 환율 하락-> 여타국 통화 가치 상승->상대적 달러 가치 하락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A에 대한 B: 50% 하락, A에 대한 C: 30% 하락 즉, B가 더 하락. ∴ B에 대해 C상승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선지 3번; B에 대한 C 환율 상승. 지문에서 '평가절상->환율이 하락 ∴ 경상수지 악화' 그러므로 C 환율은 B에 비해 상승 ∴ 적자->흑자 그러므조 맞는 선지.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보기>에서 A국은 경상수지 적자라며->경상수지 악화는 맞군요. 선지 4에 의해 경상수지 개선하려면, 그 나라의 환율이 상승해야 하네요. ∴ B국에 대한 A국 환율이 상승해야 함.

이 문제도 크게 한 번 봐봅시다.

<보기>1에 해당하는 내용은 오직 지문4였지만, 이미 12번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문제를 낼 만한 내용이 브레턴우즈의 붕괴여부와 상관없는 **일반적**

내용일 것이므로 환율과 적자, 통화와의 관계를 묻는 **1문단의 떡밥은 오직 트리핀 2뿐이죠.**

게다가 앞서 정리하기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트리핀 2였죠. **결국 중요한 게 답입니다.**

우리가 방금 한 것들이 트리핀 2 증거이잖아요..!

1문단_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기술의 목적 T
이 중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1이라 하죠.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영상2라 하죠.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역시 영상2군요.
보자.

기술 지문의 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목적 T 체크가 중요함은 기술 지문의 근간입니다. 문제->해결을 정리해주거든요.

기술의 목적 T: 운전자가 편하기 위한 으로 정리가 되군요.

또한 지문에서 영상1과 영상2가 나오는데, 이는 [영상1-->영상2]로 정리가 됩니다.

2021수능의 [모델링-->렌더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영상1로 영상2를 만들 수 있는거고,

결국, 우리가 필요한 '운전자가 편한 영상' 은 영상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영상2가 운전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지에 초점을 맞춰 읽을거예요!!

2문단_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비둘관 모양의 격자판을 띄 놓고 ->영상1을 만드는 과정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
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한편<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 촬영된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정의체크; 렌즈 왜곡=내부변수
∴ P1(첫 번째 문제)=내부변수
->S1=왜곡모델로 왜곡 보정
P2=외부 변수
S2=㉠(영상1)<->실세계 격자판
비교

크게 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왜곡 왜 보정하죠? **운전자가 편하려고..!**

'P1-S1, P2-S2의 대응' 과 영상2를 만들기 위한 영상1을 만드는 과정이 2문단이네요!

3문단_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왜곡 보정은 2문단에서 끝났군.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영상1은 아닌데, 영상2인가..?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여튼 시점변환이 새로운 과정..!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 운전자가 볼 영상이니까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자에게 편해야지! 영상2네.

역시 기술 지문답게, **기술의 과정**을 따라 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차 문제인 왜곡(내외부 변수)을 해결하는 왜곡 보정이 끝난 다음이 3문단의 내용이네요.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 이 영상2이므로 [원근효과]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네요.

3차원의 영상1을 2차원의 영상2로 옮기기 위한 작업이 원근효과 제거군요!

2021 수능의 기술 지문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기술의 과정 체크’** 였죠..

모델링과 렌더링이 차차 이어지는 기술의 과정들이었던 걸 알아야 문제가 풀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문단에서 **영상1-->영상2**라는 사실을 아니 **2문단->3문단**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차피 운전자가 편해야 한다는 기술의 **T**도 잊지 말자고요..!

UR독존 with Orbi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생각해봅시다! 글의 주제는 이번엔 기술의 **목적**이거나 **과정**이었을 겁니다.

목적은 3차원-->2차원(with 360도 영상).

과정은 왜곡 보정/원근효과/합성

정답은 뭐라고요? 이 둘 중 하나가 답일 겁니다..! 선지 볼게요!

UR 독존 with Orbi

- ①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카메라 여러 개 영상을 합성해야죠..?**
- ②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카메라 자체의 특징; 내부변수에 대한 해결책 S1**
- ③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왜곡 보정 후 합성이죠?**
- ④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내부변수네요. 따라서 왜곡모델!**
- 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운전자가 볼 영상이 3차원이라니?? T!!**

목적과 과정이 모두 잘 쓰였군요! 기술 지문의 핵심이 이 두 가지라는 것은 다양한

기출 문제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으니 우리는 살벌할 정도로(?) 이용해주자구요!

UR 독존 with Orbi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 준 것이다.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네 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다.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 영상2 즉, 완성된 영상이네요.

원근 효과가 제거(시점 변환)가 안됐으면, 멀리 있는 건 짧아보이겠죠.

가까운 건 길어보이고..! 그게 끝입니다. 선지 볼까요?

- ①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위는 머니까 짧아 보일걸.
- ②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D가 더 가까우니까 커 보이겠다.
- ③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대응은 실세계-격자판
- ④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A(먼거)크기를 늘렸겠죠?
- ⑤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옹 원래 선이고 선을 보정한거죠..?

결국 지문 읽고 정리한 목적과 과정으로만 모든 문제가 풀려버렸습니다.

과정 정리와 목적 체크가 습관이 된다면, 물 흐르듯이 풀 수 있었을거예요..!

추천드리는 연계 기출은 3D애니메이션 지문, 엔트로피 부호화 지문, DNS스푸핑

지문입니다. 연도와 월이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서술했어요..

시 문제네요! <보기>-> 제목 -> 시 순서대로 풀이를 진행할겁니다..!

문학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원이 특정 관점을 하나 지정해줘야만이

오류없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특정 관점, 즉 **프레임 = <보기>**이므로

<보기>를 통해 평가원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시를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기>부터 볼까요?

<보 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제목의 의미가 하나 나왔고, **[고향]**에 관한 시네요.

고향에 관한 시는 크게 두 가지죠.

- 1) 고향이 그리워..! 고향으로 가야지
- 2) 고향은 이제 없어 (물리적으로든, 심적으로든)

고향에 관한 시는 2021 수능에도 나오고, 이번에 또 나온 것처럼

현대 시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기출로 숙지를 해놓으셔야 해요..!

다시 보기로 돌아가서, 이 시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이 형상화되어 있고,

낭만적 봄-> 비극적 겨울 로 시상이 전개되군요.

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때를, 겨울에 대한 부분은 악화된 때를

나타낸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를 시 독해 시 철저하게 쓰자고요..!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가,나,다 공통 <보기>네요. 대상에 대한 ‘비유’ 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비유의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다 찾아야 할까요..?

비문학에서 제가 계속 주창한 것처럼 ‘시’ 를 포함한 모든 문학이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문학 작품들은 그들만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가원의 출제의도들은 그 문학 작품들이 올해 수능에 나와야만 했던 이유인 것이죠

즉, ‘시’ 나 문학 작품의 핵심을 꽃아버리면...?

정답 선지입니다.

특히 ‘시’ 의 핵심은 현대 시의 본질을 꿰뚫는 부분입니다. 현대시의 본질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일어나는 그 부분이 시의 핵심이 될 거예요..!

이제 시의 제목과 내용에 대한 독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제1 타겟은 ‘**괴리**’ 입니다.

고향에 대한 괴리 --> 고향은 좋은 곳이었고 가고 싶은데 // 더 이상 좋지 않고, 못 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읽어봅시다..!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A]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좀이 쳐.

묵화는 고향을 그린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는 시 갈피가 안 잡힙니다,,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그림조각=고향

앞밭에 보리밭에 맘매나물 캐러 간

[B]

가시내는 가시대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봄 정경이 나오는 걸로 보아 아직 악화되기 전 고향이네요.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슬레잔 두 땀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꽃 피었으니 아직도 봄이고요.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C]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일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서리-->겨울로 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못 오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됨을 잡으셔야 해요.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D]

곰처럼 어린 늑이 북극을 꿈꾸는데

늑은이는 늑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피로 가꾼 이삭을 참새가 다 먹음-> 부정적. 어린 늑이 북극을 꿈꾸는데 노인들은 싸워..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E]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고향(동리)의 밀고자인 강물도 얼어붙는다 -이육사, 「초가」-

-> 고향의 상황을 알릴 사람이 없다는거죠,,

자 말해보세요..! **괴리**가 어디있나요..?

[C]: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젊은이들이 못 돌아옴

[D]: 곰처럼 어린 늑이 북극을 꿈꾸는데 -> 늑은이는 늑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서려

왼쪽이 이상, 오른쪽이 현실이네요.. 더 크게 보면

‘봄(이상) -> 겨울(현실)’ 의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by <보기>.

방금 독해에서 느껴보셨지만, 직유니 은유니 일일이 독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며,

“시인이 뭘 말하고 싶었냐고 대답해야 교수님들이 박수 칠까?” 를 찾으셔야 하는거예요.

이 시에서는 뭐였죠?? 으음.. 현대시라면 모두 똑같아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되시나요? 아마 (가)시에서는 가을 게 봄과 겨울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시행마다 숨겨진 작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출제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고요.

해설의 연결성을 위해 문제에서 (가)와 관련된 선지만을 보겠습니다.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에서 설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평가원이 왜 가,나,다를 출제했는가’ 에 대한 이유가 답입니다. 즉 시의 핵심이요.

(가)의 핵심은 **이상적인 고향의 현실화(악화)** 정도로 정리됩니다.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노노. 문제 해결이 주제가 아니라, 악화된 문제 상황이 주제.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생무상..? 헛소리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교감 없는데..

순식간에 선지 세 개 삭제입니다.

또다른 (가) 시의 문제들을 봅시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다시봐도, <보기>에서 시를 다 알려줬네요.. 봄--> 겨울..

시를 상기해보면, A,B (완전 봄)-> C (서리;가을)-> D,E (겨울)이었죠?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봄이니까 고향 회상하지(by<보기>)**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봄 맞고요.**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소망이 이뤄진..? C면 슬슬 악화인데..?**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괴리를 선지로 냈네요. 맞죠.**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 주제인 악화된 현실 맞네요.**

일일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정답(출제자의 의도)**을 미리 정해두고 보아야,

어려운 선지는 낚이지 않고, 쉬운 선지는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22번은 (나) 시도 읽고 서술할게요!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일일이 찾지 말고, 시의 핵심..!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19번 <보기>에서 시의 초반은 고향 정경 묘사.**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햇뭇'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괴리가 발생한 부분이었죠. 괴리->삶의 불안정함.**

이제 (나)를 읽어봅시다. 문학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담다보니 엄청 길어지네요 ㅜㅜ

(나)

우선 제목에서 '산' 이 중요해보이네요.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앓은 뜻은 **장거리//산**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사람=장거리 부정적 // 산 긍정적**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기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산이 최고야**

마음이 분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산이 좋아**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산은 모태의 공간이자 죽음의 공간이야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아이고 그리워. 고향 같은 산**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산이 최고야.**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산을 닮고 싶다.**

- 김관식, 「거산호 2」 -

끝이에요.. (나)시의 주제는 뭐죠..? 현대시 아니니까 괴리라 하시면 안돼요 ㅎㅎ

'사람과 장거리처럼 살지 않고 산을 배우고 산처럼 살고 싶다.'

간단하죠..? 저게 시의 핵심이자 정답 선지가 될 확률이 매우 큼니다..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산을 닮고 싶다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죠..? 일일이 세부적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여야 해요. 정답이 뭔지 아닌지. 그걸 보고 세부적으로 판단하면 그 즉시

풀이와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20.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 -> 산을 닮고 싶다..! 장거린 등지고.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오 닮고 싶어.**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산이 인간을 표면화..? 인간과 전혀 다른 게 산인데..**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오 산에 태어나고 죽고 싶어 아까 있었지.**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산을 닮고 싶어**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산 닮을래.**

되시나요..? 간단히 **'산//사람 & 산을 배우고 싶어.'** 라는 시의 핵심으로

충분히 문제가 풀린다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22. **묵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기해볼까요? (가); 봄(이상)-> 겨울(현실)-- 묵화; 고향
(나); 산을 닮고 싶어 (산//인간)--북창; 산을 보는 매개체

- ①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일단 우리가 찾은 주제와 부합.!
- ② (가)에서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북창(산)이 절망..?
- ③ (가)에서 '묵화'에 '좀이 처'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원래부터 좋아했는데**
- ④ (가)에서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분리.? 산에 살면서도 산을 그리는..**
- ⑤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 낸다. 북창으로 산을 본게 중요한 거지 갑자기 보옥이라뇨..

시도 시의 핵심으로 이렇게 속속 푸시면 됩니다..

저도 수능 문학에서 시간 단축 못했으면, 마지막 지문은 손도 못 댔을 거예요..

문학 공부는 비문학 대비와도 직결되니 (비문학 풀 시간은 벌어주는..)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산은 '변하지 않는' ->그럼 인간은 '변하는'

(다) 우선 제목: 담초. 원진 몰라도 풀과 관련있나 봅니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꿀 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저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탄식?? 주관적 정서는 바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혜를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탄식의 내용이네요.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들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세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줄렬함에 다른 해아림이 있었겠는가?

모란과 해당화 모두 천기를 부여받았다네요.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주이 변성한데 뿔뿔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뜬에 왔기 때문인가?

어찌된 일인가?

의문에 대한 답->하고픈 말

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배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복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나왔네요..! 의문에 대한 답
하늘은 평등하게 낳았지만,
영화로움은 인간의 몫이군요

- 이옥, 「담초(談艸)」 -

주제이자 글의 핵심은 ‘하늘이 모두 낳아준 것에서 만물은 같지만, 영화로움을 누리냐의

여부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로 정리되겠습니다..!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의 주제는 하늘은 공평히, 사람은 차별적으로 사물을 대함.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하늘(자연)--인간의 관계-> 주제죠.

인간의 태도 성찰--> 글쓰기가 주제를 탄식하며 언급하고, 인간이 하늘처럼 만물을 공평히

대하지 못함에 대한 것의 얘기이니, 가볍게 맞는 선지임이 보이시면 됩니다..!

비문학처럼 문학도 '같은 말이 같은 말인줄 아는 것' 이 중요하네요!

21.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는 뭐라고? 인간의 차별적 편견..!

-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차별적으로 판단하네..? 글쓰기와 정반대**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하늘은 공평. 사람이 문제;;;**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영화로움은 인간에 달려있다고;;**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공평하지. 맞죠.**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은 차별적인데..**

역시 간편히 풀림을 느끼셔야 해요..

계속 제가 뭐하고 있죠? 글의 핵심으로

즉, '출제자가 왜 이 작품을 이번 수능에 내야만 했는가' 에 초점을 맞춰 풀고 있죠.

비문학도 문학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지문 장악력' 이 생기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보시죠.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린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부호가에게 걸린 꽃은 귀하다는 내용-근데 적막?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인간의 사사로운 차별적 편견에 대한 내용. 부합하네요

두 선지 모두 인간의 차별적 편견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부호가한테 걸리면, 영화를 누리고, 반대는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 주제가 계속 나오죠.

근데 4번 선지는 부호가에게 걸려서 적막함(영화롭지 못함)을 서술하니

선지 자체가 모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풀었네요..

문학도 명심하시죠 모든 선지는 한큐에..!

이제 소설들을 살펴봅시다..! 소설이라고 다른 게 있을까요..?

역시 주제 찾고, <보기>의 프레임을 이용해 지문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기>와 제목부터 보자고요.

<보 기>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인,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소시민의 정의에 대해 나오고 있네요.

문학 개념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서민//소시민..? **서민**; 시인들의 예찬 대상 (연대, 노력, 사랑)

소시민; 시인들의 비판 대상 (타산, 세속, 비굴)

<보기>의 내용이 이러니 우리는 소설에서 누가 소시민인지와,

왜 소시민인가?--> 소시민의 면모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보기>로 연결지으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 승인 거부당하면 소시민적 면모

허구적 권력 표지는 무엇인지.. 등을 찾으시면 됩니다.

떡밥이라 생각하고 연결지으면, 독서보다 훨씬 쉬울거예요..!

제목은 뭐죠?-->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우산이 잘생겼다라.. 좋은 뜻인지(직설)

나쁜 뜻인지(비꼼) 판별은 아직 안되네요. 지문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해봐야겠어요..!

주인공인가보죠.

김달재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목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릴없이 길거리를 배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크 아니면 올림픽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뭍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새로운 습관..? 변화이니 체크

[A] 달재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빠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실수인 척 아니면 고의로 우산의 존재를 알리려 함. 제목과 연결지어보려 시도.

우산=새로운 세계=?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몇 가지 결론 = 우산의 의미!

슬슬 읽으시면 돼요. 그저 <보기>의 내용과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왜 교수님들이 하필

이 소설을 주제로 냈는지를 생각하며 읽자고요..!

UR 독존 with Orbi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
이었다.

여기서의 서민--> 소시민..!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일껏
하던 이야기를 똑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먹고는 피죄죄한 물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우산->무전기로 사람들이 속음!

무전기=권력의 상징

∴ 우산=허구적 권력 표지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 줄 때보다 그냥 뒤꽂무디에
꼭 찬 채 부주의한 분기집인 척하면서 웃웃 자락을 슬쩍 들어
①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
이었다.

사람 놀리는 데에 맞들렸네요;;

김달채->허구적 권력 표지 악용.

김달채 씨는 그러잖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것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짬만 생기면 하릴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새로운 습관=색다른 취미 였네요.’

(중략)

그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 새로운 사건..?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 김달채에겐 흥분과 기대감.

정도가 어디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
들이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

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도망치는 걸 김달채 씨는 보람을 느낄 것이라 생각.

일반적인 행보는 확실히 아니네요?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맹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을음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 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 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합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시북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 ->사람들 앞에 나섬.; 정말 뭐라도 된줄 아네요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북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 자신이 뭐라도 된 줄 아네요!!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북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비표: 진짜 권력 표지일까요?

“나 이런 사람ियो.”

김달채 씨는 영겁결에 잡아 자락 한끝을 슬쩍 들어 뒤통수에 께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소시민한테 통하지 ‘진짜’한테는 안 통하네요..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이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체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춘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우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함..

- 윤희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

--> 매우 잘생긴 우산; 비곤 거였네요.

소설의 주제를 생각해볼까요?

허구적 권력 표지를 악용하는 김달채나

그걸 속는 소시민이나, 권력관계에 타산적임을 비판하는 소설이었습니다.. -> 정답 선지!!

생각해봅시다. 어려웠나요..? 우리가 보는 **노포르스** 드라마나 영화들보다 어렵나요?

문제점은 여기서 출발하는거죠.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지점입니다.

“왜 학생들이 영화나 웹툰의 떡밥은 잘 알아보면서, 시험지의 지문은 휘어어어얼씬 짧은데도 이해를 못할까..?”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읽으세요. **소설로서 흥미로워 보이는 부분들과**

어 특이하네?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출제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문학 개념 공부할 것은 심상이니 비유니 이런 00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과 서민의 차이, 현대시의 본질, 그런 내용들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문학 개념어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라고 전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한 주제가 답일지 또 보러 갑시다!(당연히 답이겠죠 ㅏㅏ)

24.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상 특징이라고 일일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제 찾기에요.

정답 선지는 어차피 주제입니다. [A]: 김달채의 새로운 습관(사람들 놀리는거)

- ①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 사람들 놀리는 거. 여기 있네요..!
- ⑤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긴장감 조성이니, 공간 이동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로 시간 쓰면 너무 아파요..

크게 주제로 푸는 거예요. 공간 이동을 문학개념이라 생각하고 외우지 말아요..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찾읍시다!!!

- ①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새로운 습관= 색다른 취미; 청명한 가을날..!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같은 말이 같은 말인줄 알자~!!!

- ② 피려려한 물결의 김달채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거를 보여 준다. 무시당한 적이 이 글에서 있었나..?
- ③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비이상적 행동...!!!!
- ④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 받던 김달채는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선다. **아닌데, 오히려 갔는데 (비이상적 행동)**
- ⑤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는 건물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합성에 안도감을 느낀다. **안 끌려갔는데..**

아까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이잖아요. 김달채가 어지간한 또라이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대목 즉, 김달채가 비판받아야 할 소시민이라는 대목(주제네요)이 정답이죠.

일일이 0/X 퀴즈 풀다가는 45*5=225개입니다.. 어느 세월에 하냐고요..

계속 되뇌입니다.

“왜 교수님이 이 소설을 출제하셨을까요??”

다음 문제 또 볼까요?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케이스// ㄴ: 우산 이상의 것(권력)

ㄷ: wanna be ㄹ: ...! 이 주제랑 직결되는 부분이죠?

근데 특이점이 하나 있죠? wanna be; 즉 안 통할 때도 있어요. 언제였죠?

사복 차림의 청년한테는 마지막에 안 통했죠--> 특이점 즉 출제요소입니다.

선지에 정답으로 있겠네요.

- ① 김달채는 ㉠을 그 생각대로 인해 ㉡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 완벽히 적절.
- ② 김달채는 사람들로 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 --> 김달채의 또라이 같은 면모
- ③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지문에 있었죠..
- ④ 김달채는 ㉡에 익숙하지 않은 '거개의 서민들이' ㉠을 ㉡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장난치고 다녔죠..
- ⑤ '사복 차림의 청년'은 ㉡에 익숙하여 ㉠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지문의 내용에는 '애초에 ㄴ 따위의 것을 신경쓰지 않아서' 였죠. 권력관계에 신경쓰지 않는 사복 청년에게는 통할 리가요.(<보기>의 내용이죠?)

지문의 주제와 <보기>의 적절한 사용이 확실한 정답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보기>의 프레임으로 지문을 열심히 독해해라!가 문학의 목표가 되겠네요.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소시민에 대한 <보기> ; 김달채와 속은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

〈보 기〉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김달채는 소시민; 권력관계 의식**
- ②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권력-> 술값 안 받으려 함.**
- ③ 김달채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허구 권력 표지 악용**
- ④ 김달채가 사복들에게 복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채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사복한테도 통할 줄 아는 자만**
-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학생들과 유대관계..?**

애초에 <보기>는 권력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 관계가 나올 리도 없고요.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과대한 목적보다는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함이죠.

자신의 안위가 인생의 1순위인 사람들 = 소시민

또잔한가요.? 아니죠. 소시민이 나오는 소설에서 소시민을 안 물어볼 리가요.

이게 **문학 개념**입니다. 소시민에 대한 문학 개념이 잡혀있었다면 보자마자 이상한 게

눈에 띄는 거죠. 제발 영탄법, 독백 이런거 외우는 거 멈추세요..